

이야깃거리 ②

To. 트위디

안녕? 내 이름은 올리버야. 올해에 8살이 되었어.
우리 가족에 대해 소개해줄게 날 낳아 주신
엄마의 이름은 브룩이야. 라이언 아빠랑 같이
살고 있어. 라이언 아빠는 우리 아빠이긴 한데
나를 낳아주신 분은 아니래. 나의 친아빠는 지금
우리랑 같이 살고 있진 않으서. 그래도 나한테는
라이언 아빠가 있어서 괜찮아.

우리 엄마 브룩이랑 라이언 아빠가 남동생을
만들어 주셔서 3년전엔 예쁜 댄도 태어났어.
얼마 전엔 막내 동생도 태어났어~ 막내
동생은 제니 엄마와 라이언 아빠 사이에서
태어났어. 제니 엄마도 지금 우리랑 같이 살고
있어. 우리 식구 대식구지?

●**브룩** 라이언을 만나기 전에 전 다른 사람과
살았었어요. 그 사람과의 사이에서
올리버를 낳았구요.

○**기자** 올리버는 라이언의 아들이 아니었군요?

●**브룩** 네. 감사하게도 라이언은 나의 아들을
양자로 받아 들였고,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기자** 그럼 제니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늦게
합류한 건가요?

●**브룩** 네, 처음엔 라이언과 저 둘이서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라이언과 저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우리 관계에 다른
사람들이 파트너로 더 추가 될 수 있다는
열린 생각을 가지고 만났어요. 그래서
제니를 만났을 때 우리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기자** 그러면 브룩이 첫째 아내이고 제니가
둘째 아내가 되겠네요?

◎**제니** 순서로 따지면 그렇지요. 하지만 브룩과
저는 둘 다 양성애자예요. 우리는 남성,
여성 따지지 않고 다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에게도 사랑을 느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는 한 남편을 공유하는
두 아내가 아니라, 나 자신을 다른 두
명의 남녀와 같이 공유하는 거라고
얘기하죠.

○**기자** 현재 세 명이 함께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파트너의 숫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라이언** 네, 처음부터 열린 생각을 가지고 만남을 시작한 거라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사실 우리는 가끔씩 우리 셋 말고도 다른 사람들을 집으로 가끔씩 불러와서 같이 섹스도 하고 즐기기도 해요. 성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스트립 클럽에도 같이 가고, 다른 남성이나 여성과도 언제든지 원한다면 관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기자** 아..그러시군요. 앞으로 하는 질문들은 조금 불편할 수 있긴 합니다. 먼저, 이런 비전형적인 가족형태를 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니** 일단 편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잖아요.** 두 명보다 세 사람이 즐기는 성관계는 훨씬 더 흥분되고 즐거워요. 또 보통 부모가 두 명뿐인 가족을 보면 엄마들이 항상 아이에게 치여서 잠도 모자라서 쾅한 눈으로 자식의 노예처럼 살잖아요? 나는 그렇게 자식을 위해 나를 희생하기 싫어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보는 동안 브룩은 요리를 준비할 수 있고, 라이언은 집 정리를 도울 수 있죠. 셋 중 하나가 아이들을 보는 동안 다른 두 명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죠. 이 얼마나 편한 삶이에요? 난 이게 행복이고 사랑의 충족이라고 생각해요.

○**기자** 그럼, 이런 삶이 아이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 것 같나요? 아이들의 정서 발달과 교육에 가정형태만큼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택하실 때 앞에서 언급하신 다자성애적 욕망의 채워짐, 생활의 수월함, 그 외에 것들, 이를테면 아이들의 정서적 양육, 가정 교육, 사회성, 윤리성 등도 염두에 두고 계셨나요?

브룩엄마랑 제니엄마도 서로 뽀뽀도 하고 서로 너무 너무 좋아하셔~ 가끔씩은 우리집에 아빠랑 엄마들이 다른 사람도 데리고 오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랑 뽀뽀도 하고 서로 이쁘다고 만져주고 안아주기도 해. 우리 아빠와 엄마들은 그런걸 사랑해주는 거라고 하셨어.

우리 아빠와 엄마들은 참 사랑이 많으신 분들이야~ 나도 크면 우리 아빠 엄마들처럼 많은 사람들과 사랑을 할거야~

●본 글은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이야기의 모티브가 된 가정의 부모들이 기자에게 했던 말 중에 본인의 자녀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보는 것이 다자성애 부모와 가정이기 때문에, 다자성애를 이상한 가족형태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두 엄마와 한 아빠를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 외에 집에 들르는 가족이 아닌 제 4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열린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불뽀뽀에도 말입니다. 다자성애자 부모의 논리로는 언제나 아빠가 한 명 더 추가되거나 엄마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개방적인 가정은 부모의 극히 이기적인 욕구 충족만을 위해 아이들의 희생을 강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정 안에서 자란 아이들이 가정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가정 구성원간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책임과 그에 따르는 희생정신, 더 나아가 사회에서 지켜야 할 선과 도리를 배울 수 있을까요? 전통적으로 일부일처 가정형태가 수 세기 동안 지켜져 온 이유는 분명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 가정형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지 못한 채 자란 아이들에게는 어떠한 삶의 방식도 강요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결국 가정은 무너질 것이고, 바른 윤리는 사라져 갈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 인권 중심 움직임의 궁극적 목적이 아닐까요?